

##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감사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가슴에 깊은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군산공항 내려서 강현욱 지사와 함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안에서 강 지사가 ‘사랑이 깊으면 원망도 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요 근래 전북 도민들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청과 더불어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선물은 접어놓고, 지역 혁신체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선물 얘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체계를 가지고 얘기해야 전북 장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지방은 돈도 권력도 부족하지만,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대단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이 침체, 위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지방이 일어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

양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공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체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사업체가 됩니다.

사람은 왜 없느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돈, 특히 정부가 금융기관을 가지고 모든 자원을 세분화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시대였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방은 돈도 권력도 부족하지만,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대단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방이 주도해서 스스로 발전 모색하도록 하고, 거기서 효율성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관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작업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자율권을 지방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권한도 대폭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쓰던 돈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연 30년 동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지방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싶어서 다시 만든 것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수도권 자원 집중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차단하고, 결국 지방에 인재가 회귀, 돌아올 수 있도록 지방에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이 주도해서 스스로 발전 모색하도록 하고, 거기서 효율성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관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하자는 쪽으로, 전

략을 짜고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결국 지역사회, 대학, 언론까지 결합해서 지역혁신체계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시키자는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성공하느냐에 안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 달려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법정기구 만들게 하고, 그것 토대위에서 많은 연구,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만들고, 혁신연구회도 만들고 혁신클러스터도 만들고 이런 전략을 권고하고 지방과 협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라북도 발전과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 중앙정부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는 가운데 지방은 이제 드디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멈추고, 지방이 다시 활력이 되살아나는 전환점을 제 임기 내에 만들어 보는 것이 제 야심입니다. 제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